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제18호

2008. 12. 10

발행인 임기수 설문대어린이도서관 749-0070 <http://www.smd.or.kr>

남생이못, 우렁이 친구 개구리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신촌 남생이못에서 책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신촌새마을문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만남이 이번 책 잔치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촌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 매 해마다 여는 설문대 책잔치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남생이못, 우렁이 친구 개구리들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우산 쓴 개구리 도서관에서 읽는 책은 더 재미있어요. “꿈꿈이 실을 감아야 돼.....” 알록달록 털실을 이용한 거미집. 거미아난시의 집보다 훨씬 멋있을까요?

신촌마을을 한 바퀴 탐사를 하고 돌아와서 내 마음에 남은 그 곳을 그려보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남생이못에서 펼쳐지는 음악회. 아름다운 가을밤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2008년 설문대책잔치가 끝났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책 잔치가 끝난 지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그 아쉬움이 그 다음 책 잔치에 힘을 주기도 한답니다. 설문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알찬 책 잔치로 만나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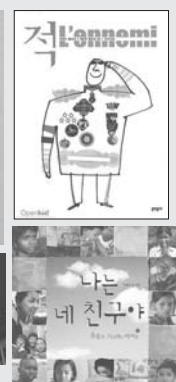
책들의 가을소풍



10월 18일~19일에는 도교육청이 주관한 <책들의 가을소풍> 책 축제에 우리 설문대가 수목원으로 도서관을 옮겨 갔어요. 가을 햇살 가득한 이틀 간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설문대 바깥도서관에 다녀갔습니다.



책이야기(신간,설문대...)



2008년도에도 많은 책들이 설문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늘 그러듯이 모두 다 신나고, 재미있고,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드는 책들이었지요. 어떤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고른 책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안 읽었다면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안보면 후~회합니다. <단골손님/사파리>은 훈장이 시리즈이야기로 세상에 어떤 직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내꼬리/한술수북>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나와 친구들도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적/문학동네>은 평화에 대한 강한 울림이 <왜?/현암사>를 생각나게 하는 작품입니다.

<폭풍우치는 밤에/아이세움>은 늑대와 양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로 다섯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발표된 작품입니다.

<눈을 감고 느끼는 색깔여행/고래이야기>은 정말 눈을 감고 느껴보는 책입니다. 눈으로 보다 손으로 느껴지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나는 네 친구야/시공주니어>는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재미있었던 설문대 시간들

도서관에서 하룻밤

2008년 7월 28일 밤 아이들은 덮고 잘 이불과 간식을 싸들고 도서관으로 모였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무조건 누워서 책 읽기”를 했더니 아이들은 신이 났다. 삼무공원 산책하기, 간식 먹기, 보물찾기, 신나는 몸 놀이,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보면서 잠자기. 다음날 공원 산책, 놀이, 간식을 먹고 간단한 평가를 하고 귀가 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하룻밤은 올 해 제일 재미있는 설문대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화기행



신화기행을 떠나기 전 우리들은 제주의 1만 2천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주당의 중심인 와흘당 신당을 찾아 나섰다. <백주도령>, <신흥본향당>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주신화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신화기행을 다녀온 후 제주신을 형상화 하는 판화작업에서는 아이들이 더 없이 진지한 모습이였다.

판화는 액자로 만들어 한 달 동안 설문대에서 전시하였다.

수다가 좋아요

책읽는 여우



매주 화요일 10시에 수다쟁이 아줌마들이 설문대로 발길을 향한다.

「내 웃음 어디로 갔지?」그림책을 시작으로 인권그림책, 손탄의 「도착」, 「그림책의 이해2」, 「농담하는 카메라」 박경리 유고시집, 「오래된 미래」등 여러 분야의 책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아줌마들은 책 수다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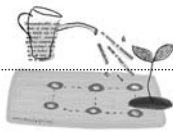


도서관 이용시간

· 화~토

오전 10시~오후 6시
(여름철 7시)

·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두린아이 손자파리



그림책이 놀이가 되는 시간. 조막만한 두린아이들의 손으로 달팽이나 뼈를 만들며 서툰 가위질을 하던 아이들의 손놀림이 가을이 되면서 무척 야무져서 팝업북을 만들 때도 척척이다. 퍼즐놀이감을 만들어 신나게 놀고,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를 읽고 두린아이들의 겨울코트도 변신 시켜 보았다. 불가사리를 읽고는 극놀이를 했다. 불가사리역이 인기가 많다. 그림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이 마냥 행복하길 바라는 맘 가득하다.

둘째주 토요일 과학놀이



어라! 풍선이 저절로 불어지네? 식소다와 식초를 같이 넣어 흔들었다니 풍선이 부풀어 오르네요 왜 그럴까요!!! 탄산수소나트륨의 성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과학이 놀이가 되는 시간이랍니다.

여근아이들



‘엄마랑 형이랑 싸울때 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1학년 흥빈이의 이야기다. 도서관 친구들과 작은 미니 싸이코 드라마 형식을 띤 수업을 했다. 집 안에서, 학교에서, 어른들이 그렇듯이 아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도서관에서 남아 책을 읽고 이야기

하면서 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설문대가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은 늘 아이들과 책을 읽고 놀아 보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여섯시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달려온다. 지난 주 얘기하다만 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6개월 동안 둘 아이만 쫓아다니면 재미있게 역사 하고 놀 수 있다. 2005년 어려워하는 역사책

을 아이들과 재미있게 읽어보려고 시작된 모임 벌써 8기째가 넘어가고 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신나는 설문대 역사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해요

-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그림책

❖ 일시 2009년 1월 5일(월) ~ 9일(금) ❖ 장소 설문대어린이도서관 1층

2009년 설문대 프로그램

여근아이 속닥속닥 - 학교밖 글쓰기
두린아이 손자파리 - 유아그림책교실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과학책 읽는 아이들 모임
주말 책 놀이터 '모여라 약당개미들'
행복한 책 나들이 - 농촌병설유치원 책 읽어주기
학부모 독서모임 - 책 읽는 여우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해요'
학부모강좌 - 엄마랑 집에서 하는 글쓰기
미술놀이 - 영명진창그리기
네트워크프로그램 - 농촌마을문고 책 읽어주기
동네영화관 - 한 달 한번 도서관 영화상영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여름방학)
콩 프로젝트 - 콩! 너는 죽었다.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책나들이



***납읍병설유치원** : 납읍초등학교는 자유롭게 공 차고,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도 어색하지 않으며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주는 초등학교 형, 언니들로 가득하다. 그런 활달함 때문일까? 책 읽어주러 가는 설문대를 무척 반긴다.

한 학기로 마치는 책 읽어주기 봉사가 끝나갈 무렵 납읍병설유치원 친구들은 그림책에 대한 재미에 푹 빠져있었다.



***북촌병설유치원** : 매주 금요일 오전에 북촌병설 어린이들 만나러 가는 길 아이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초롱초롱, 뽕뽕뽕!!!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움도 많이 탔던 아이들이 제법 친해져서 몸에도 안기고 헤어질때면 아쉬움이 한바탕이다. 이 아이들의 추억 속에 책 하면 '설문대' 라는 이름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네트워크 프로젝트



신촌리 마을문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면 만나는 신촌 친구들! 매주 오는 친구 얼굴들이 다르고 인원이 다르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들이 오실까? (다섯 분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방문한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주실까? 오늘은 어떤 수업 내용일까? 항상 새롭고, 항상 들뜬다.

3월부터 시작한 신촌친구들과의 만남은 설문대 책잔치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재미있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설문대와 신촌친구들과의 인연은 보통이 아니겠조?

꽃들에게 희망을

여름독서교실



책만 읽고 싶을 때는 언제일까? 어린이? 청소년? 아니면 어른? 설문대가 책만 읽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독서교실에서는 정말로 책만 읽다가 간다. 책 읽는 모습을 보면 바르게 앉아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똥 싸는 품으로 읽는 아이, 책상에 엎드려 읽는 아이, 옆 친구보다 많이 읽었나 확인하면서

읽는 아이 등 관찰하는 선생님의 눈에는 아이들 모습이 정말 우습다. 빨간 우체통에 넣을 책 친구에게 보내는 엽서는 준비한 양이 모자라 또 찍어낼 정도로 아이들은 적극적이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시간은 휴식권을 뽐낼 때다. 5분, 10분 15분을 소중히 아껴 쓰는 아이들이다.

책만 읽는 여름독서교실이 어느새 4년째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책만 읽어도 독서교실이 될까? 했는데 마지막 평가를 적을 때 보면 조금 지루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고 적어낸다.

책만 읽는 설문대 여름독서교실은 앞으로도 쭉~욱 계속 될 것이다.

후원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경남 강경림 강기영 강동근 강동훈 강만숙 강문정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수민 강수선 강순희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은희 강인숙 강지니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강경완 고경희 고만성 고명옥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범 고성호 고양열 고영미 고유경 고유선 고은희 고의숙 고정숙 고정희 고정하 고정영 김경순 김경영 김경옥 김기욱 김광희 김만생 김명선 김미조 김성미 김성호 김성환 김세희 김소희 김순덕 김승희 김 신 김양화 김연숙 김영미 김영민 김영환 김오순 김옥희 김용식 김용택 김유정 김윤자 김인영 김재윤 김재환 김정금 김정윤 김정은 김중현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효숙 김효정 김 훈 김희정 문경애 문계양 문금선 문유성 문인화 문재홍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미희 박부자 박정석 박태진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부진순 서종석 성영희 송남수 송미경 송시우 송지영 송춘미 송치우 신우용 안연하 안은희 안진영 양가애 양다림 양연실 양영택 양용선 양운규 양재성 양정옥 양정현 양정은 양중수 양진건 양호선 양희선 양희정 양희연 오금숙 오성문 오승훈 오승훈 오정심 오정임 오중훈 오지은 오택민 오형범 우상임 유지숙 유만중 유종상 유경숙 윤경희 윤지현 윤희순 이경선 이경의 이경희 이광복 이덕순 이동삼 이상현 이상희 이승현 이영미 이영심 이영호 이 옥 이윤숙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재철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건 이창식 이현동 이혜연 이호석 이효열 이희숙 임경를 임권용 임미숙 임선향 임승희 임정일 장미애 장소영 장현선 장갑일 정동진 정명선 정수연 정영우 정윤택 정운택 조용숙 좌순자 좌춘자 지희정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창욱 차지연 채정심 채희경 최미경 최미자 최형규 한상희 한예순 허순수 허 유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오정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정민 홍호정 (이상 227명)

*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입니다.
* 제주ECC어학원에서 영어도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